



한국의 보물, 해인<17>

해인설화 분석의 맺음말

특정 이름의 설화로 한데 묶을 수 있는 여러 설화에서 행위의 주체는 바뀌지만 행동과 기능은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설화군(說話群)은 반복되는 일정함이 있어서 동일한 배열순서로 인해 하나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구성요소, 상호관계, 전체와의 관련을 따짐으로써 설화의 내용에서 일정한 것과 변하는 것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구조란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맺고 있는 내적인 관계로 간단히 정의해 볼 수 있다. 앞에서 행한 일련의 설화분석을 통해 해인설화의 기본구조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인이 개, 자라, 이상한 동물 등을 몇 년간 길러주는 은혜를 베푼다. → 어느 날 그 동물이 갑자기 사라진다. →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 그 동물이 사람 모습으로 변신하여 찾아온다. → 동물이 자신은 원래 용왕의 아들이었노라고 신분을 밝히고 나서 길러준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말한다. → 용왕의 아들이 지상의 인간을 용궁이라는 이상향에 데리고 간다. → 용왕국 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상의 인간을 잘 대접한 다음 용궁의 보물인 해인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지상에 돌아온 사람이 해인을 사용하여 온갖 물건을 마련해서 잘 살게 된다. → 어느 날 해인을 처음 소유한 사람을 찾아온 이인(異人)이 해인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해인을 내준다. → 이인은 해인을 가지고 해인사를 창건 또는 중창한 다음 해인을 해인사의 비밀장소에 깊숙이 숨긴다. →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이인(異人)인 정만인이 나타나 해인을 찾아낸다. → 정만인은 해인을 가지고 신비한 장소로 숨어버린다. → 언젠가는 해인을 가진 이인이 다시 나타나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해인설화의 기본구조에서 우리는 먼저 그 장소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수 있다.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지상 → 바다 속 → 지상 → 바다의 어느 섬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인설화의 공간은 현실과 이상세계의 대립구조로 이해되는데, 여기서 두 세계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지상인의 이상향으로의 온전한 이동이 가능한 점, 이상향이 인간계와 다르지 않게 표현된 점, 두 세계가 교통이 가능한 점 등이 그 증거이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만남은 해인이 바닷속에 영원히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상과 바다의 경계지역에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의 결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의 상호교류는 '은혜를 베푼다. ↔ 은혜를 갚는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두 세계 사이의 교류가 가능한 것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인간이 짐승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와 은혜를 입은 존재가 다른 세상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다. 미물인 짐승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에 의해서만이 신비한 세계로의 출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용궁 구경과 해인이라는 보물을 얻는 일은 짐승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열핏 보면 보잘것없는 일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한편 보물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인설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보물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편리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나쁜 못 쓸 물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생필품이나 돈을 마음대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보물의 존재는 공동체 전체의 유지에는 오히려 역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인간이 은혜를 베푸는 일의 보상으로 받아온 보물이 이제는 그 사람을 파멸의 지경까지 내몰 수도 있다.

그래서 해인은 나라에 바쳐지기도 하고 처치가 곤란한 쓸모없는 물건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처럼 보물은 사적인 목적보다는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인의 믿음이 해인설화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해인은 해인사라는 종교적 건축물을 창건하여 많은 사람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도 하고, 민족적 수난을 가져온 왜적을 물리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고 설명된다. 나아가 우리는 해인설화를 통해 해인이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국가의 보물로 믿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인이라는 성물(聖物)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보물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이 손상되며, 어쩌면 인간계 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위

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인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설화에서는 정만인이라는 이인이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훔쳐갔다거나, 해인이 다른 세계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운이 쇠미해졌다고도 설명한다.

이는 해인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물(聖物)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는 설명이며, 언젠가는 다시 공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여운을 간직한 형태로 이야기된다. 따라서 해인은 단순히 없어져 버린 물건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사용될 보물로 한국인의 마음에 여전히 믿어지고 있다.

해인설화는 원래 바닷속에 있었던 보물로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해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찮은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해인은 지상에 나타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인설화는 작고 쉽게 보이는 행위라도 힘써 행한다면 반드시 보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교훈을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해인설화에는 보물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는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 해인은 개인의 보물에서 벗어나 나라의 보물로 믿어지게 되었으며, 언젠가는 이인의 손에 의해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해인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주고 국운을 번창하게 해 줄 국가의 보물로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다. 따라서 해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물 신앙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해인설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화소(話素)는 모두 일정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불교 '화엄경'의 교리, 이상대사의 법성계, 해인사의 연기설화, '임진록', '정감록'과 '적암유록', 대원군과 정만인에 얽힌 이야기, 증산교의 교리, 개타사와 아산(也山) 선생 이야기, 한국 신종교의 해인신앙 등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제 해인설화에 보이는 해인이라는 보물에 대한 신앙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해인설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화소들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 또는 종교적 진실을 찾아보고 그 역사적,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김택박사/신종교연구가

의상대사 해인도에서 궁을 자리의 계송 해석

격암유록 『十勝歌(십승가)』에 “八萬經內普惠大師 彌勒佛之十勝(팔만경내보혜대사 미륵불지십승이요 義相祖師三昧海印 鄭道令之十勝(의상조사삼매해인 정도령지십승)이요”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三昧海印(삼매해인)'과 관련된 용어를 의상대사의 법성계에서 찾아보면, “능히 어짐을 행하시는 분(부처)의 해인삼매에서 마음대로 불가사의한 것을 풍성히 쏟아낸다(能仁海印三昧中 繁出如意不思議)”라는 계송을 확인할 수 있다.

격암유록에서는 삼매해인의 주인공이 미륵부처님이요 정도령인데 십승(十勝)으로 통칭됨을 알 수 있다. 십승(十勝)은 곧 궁을십승(宮乙十勝)을 말한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그린 해인도에서 궁을(宮乙) 자리를 지나는 계송을 찾아내어 해석하고자 한다.

7인 30구 210자의 계송으로 된 해인도에서 궁(宮) 자리를 지나는 글이 7인 4구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증지소지비여경 (證所知非餘境)
진성심심극미묘 (眞性甚深極微妙)
불수자성수연성 (不守自性隨緣成)
일중일제다중일 (一中一切多中一)

해석하면, 깨진 지혜로 즉 견성(見性)하면 무불통지(無不通知)하고, 진성(眞性)이 되는 부처님(하느님)의 성품을 갖추어 안주하게 되니 내 내마음의 그윽히 깊은 데서 올라오는 환하는 미묘하기 그지없도다. '나'라는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부처님(하느님)이 인도하시는 인연따라 살아가니, 하나 속에 일체(나를 포함한 만유)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부처)가 있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는 한몸 철학에 동화되네.

그리고 해인도에 을(乙) 자리를 지나는 글은 7인 2구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십불보현대인경 (十佛普賢大人境)
능인해인삼매중 (能仁海印三昧中)

'능인해인삼매중(能仁海印三昧中)'에 대한 해석은 서두에서 언급되었으며, '십불보현대인경(十佛普賢大人境)'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화엄종(華嚴宗)의 개조(開祖)인 의상조사가 80여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의 '화엄경'의 뜻을 210자의 시로 나타낸 《법성계》에 의거하면, 십불(十佛)은 이(理)에 해당하며 보현(普賢)은 사(事)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십불의 이(理)가 현상계로 표출되어 일체중생을 해탈의 길로 이끌어주는 일을 할 때에는 사(事)로서의 보현보살이 된다. 그러므로 "이(理)와 사(事)가 명연(冥然)하며 분별이 없으니 십불과 보현, 대인의 경지로다."라는 연기(緣起)의 결론을 해인도의 을(乙)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엄경》에 의하면, 보현보살은 일찍이 비로자나불 밑에서 보살행을 닦았던 보살들의 대표로, 구도자들에게 법계(法界)를 열어 보여주는 사실상의 《화엄경》 설법사이다. 보현보살은 일찍이 못 여래에게 봉사하고, 모든 보살도의 구구에 도달했으며, 삼매에 의해 자재력을 얻고, 불법에 대해 의문을 풀고, 일체여래의 가지(加持)를 받아 일체중생의 근기를 따라, 일체중생의 해탈의 길을 열어준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해인삼바라밀도를 그렸을 때 그의 스승인 지엄(智嚴)이 그것을 보고는 호풍환우(呼風喚雨) 이산조해(離山超海)하는 법이 들어있다고 했다. 과연 궁을십승 정도령이 화우로 삼통해인(三統海印)으로 한국 땅으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고 강우를 조절하여 풍년 들게 하며 갈래광명으로 중생들의 성물을 돕고 있다. 또한 '구원 얻는 기간이 21일'이라고 2001년 12월 21일에 설교(https://blognaver.com/pts9228/222940167337)하시고 21일만에 승리의 하느님으로 완성되는 비결을 설하셨다.*



◎ 해인삼바라밀도(海印十波羅密圖) : 210자 계송이 '법(法)' 자로 시작해서 '불(佛)' 자로 끝나는 "해인도(海印圖)"와 가장자리에 이차삼점(點)을 비롯하여 열 가지 문양이 배치된 '십바라밀도(十波羅密圖)'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해인도는 "갯가지의 꽃으로 장엄한 일승(一乘)의 진리 세계의 모습"을 담았다고 해서 《화엄일승법계도장(華嚴一乘法界圖章)》이라고도 한다.

성경은 인간과 만물이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있다.

따라서 선악과의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을 수 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듯이, 생명과 일의 정체를 알고 먹으면, 인간은 누구나 탈검중생하여 태초의 하느님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죽게 된 근본 원인이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정체를 바로 알아야 고, 생로병사의 근원

4. 선악과와 창조 신화

(지난호에 이어서)

선악과의 정체를 알면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신화와 선악과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인간과 만물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먹고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인간 속의 양심이 욕심에 지배받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하느님의 신이 마귀가 되는 선악과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생명의 신 하느님이 마귀 신이 되는 선악과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느님의 신은 그 본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상실하고, 우주에 가득했던 중성자 빛의 존재가 음양의 우주 만물로 쪼개져 오늘날과 같이 음양의 물질로 변화되었다. 그렇기에 모든 동식물도 생명의 본능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6】

과 사랑의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령이 깃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들이 서로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먹고 먹히는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생존본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종종 보존을 위하여 암수가 교접하는 것은 인간이나 다를 바 없다.

하물며 최고의 영혼을 가진 사람을 단순히 흠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요, 미개한 시대의 창조 신화일 뿐이다. 이러한 창조 신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흠에서 유기물이 합성하여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동식물로 진화하였다는 또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어리석은 인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세상 만물 속에는 하느님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씀이 하느님이요 생명이며, 하느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만물 자체가 하느님의 신이 소재가 되어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창세기에 하느님이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창조론이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이라 하여, 새로운 학설의 진화론을 만들어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해 보려 하지만, 이 역시 모순에 모순을 더하는 가설을 하나 더 만들어 낼 뿐이다. 즉 그들은 인간과 우주 만물의 원초적 생명의 본질을 논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흠 속의 유기물이 우연히 저절로 합성하여 아메바와 같은 생명체가 생겨

났다고 하나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유전 과학이 발달하고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중간 고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물질의 핵심체가 되는 중성자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 라 말하지만, 그것이 왜 그러한 양면성의 작용이 일어나는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성자의 빛이 하느님의 빛이요, 회전하며 움직이는 곡선 광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즉, 실험실에서 여러 겹의 종이 상자에 구멍을 내고 빛이 투과하는 실험에서, 입자처럼 하나의 구멍을 통과시켜도 그 다음 칸에서는 여러 개의 구멍에 빛이 나타나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과 한민족의 전통사상에 사람을 두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

원전부터 존재했던 하느님의 신이 비록 음양의 신 마귀에 사로잡혀, 몸과 마음이 마귀 형상으로 변화되었지만, 인간 속에 하느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곧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고, 창조력이 있으며, 영원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희생과 인내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은, 현재 나라는 주체 의식이 되는 욕심의 마귀 탈을 벗고, 양심이 주인이 되어 원래 하느님의 성령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이 땅에 오신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이 세상에 는 참 종교도 없고 참 학문도 없다”고 설교하셨다.*

一行 徐輔睦